

이중오형을 그리워하면서

김규호 (64년)

이중오형의 귀천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동기들을 셋으로 나누어 첫 1/3은 너무나 일찍, 다음 1/3은 제 때에, 나머지 1/3은 조금 늦게 귀천하는 거로 가정한다면 이중오형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꽃 중의 꽃인 80대, 노인대학원 2학년을 끝마치지 못하고 떠나심은 애석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삶을 축복해 주고 싶네요. 이런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학창시절에는 총명하고 재기 발랄한 아이였던 거는 기억하지만 몇 마디 주고받은 기억도 없을 그런 교유 관계였지요.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두 번 있었어요. 1973년인가 1974년에 정신과전문의로 Buffalo에 자리잡은 중오네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교동국민학교 또 중고등학교 동기인 경식이, 조경식을 만난 거예요. 중오가 경식이의 매부 더군요. 조흥은행 사택이 있던 경운동에서 홍표와 내가 자랐고 100 미터 안에 경식이, 영기 중호가 살았으니 동네는 좋은 동네였어요. 그런 관계를 알고 나니 조금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요. 50년전 일이었지요. 또 한 번은 2016년, 효명이가 L.A.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Chicago의 딸네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거동이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그 힘든 재활치료를 감당해내는 효명이, 될 수 있으면 웃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효명이가 장해 보여서 Email 활동이 왕성했던 세현이에게 부탁했어요. 동기들에게 널리 알려 격려 카드를 보내 주자고 말입니다. 세현이가 동기반장 선경이에게 알려 선경이가 지시를 내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몇 장의 카드가 왔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효명이 부인이 일체 언급을 한적 없으니깐 말입니다. 이때 중오가 또 한번 나를 놀라게 했어요. 이 Campaign의 내력을 알고 나한테 Email을 보내왔어요. 뜻밖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Email을 몇 번 더 주고받았는데 그의. 마지막 Email 내용이 그의 삶의 축소판일 수도 있겠기에 형과 다른 동기들과도 나눠 보고 싶어졌어요. 2009년 Bypass, 2010년 Stroke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서 6 번째 됐을 때 보내준 글이에요.

전공분야 밖에 이런 뜻깊은 일을 성취한 이중오형이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책은 읽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절대로 이광수 선생에 대해 나쁜 말은 안 썼으리라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들을 그린 상록수를 펴내신 그분이기애 말입니다. 또 그 책의 주인공, 오유경??을 아직도 못 잊어 한다면 웃을 사람도 많겠지요? Quiz 하나; 우리 동기들 중에 그의 형님이 이광수 선생의 따님과 결혼하셨는데 알아 맞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중오형 우화등선하세요. 다시 한번 형의 삶에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16년 5월에 이중오형이 보내왔던 이메일입니다.

To kyuhokim1@yahoo.com

May 3, 2016 at 7:27 PM

규호 보시게나.

정말 고마우이

그 동안 궁금했었는데 열심히 살아온 자네의 인생역정이 잡힐듯 가깝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네.

벌써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되었군.

나도 버팔로에서 38년을 살고 이곳으로 내려왔지. 아들녀석(Tom Rhee)도 69년생으로 하바드를 나왔으니 자네 아이들과 동문이 되겠네. 지금 워싱턴 디씨 근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지.

딸아이는 나성에서 mba 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네. 나는 다행이 대학에서 과장을 잘 만나서 학생과 레지던트 교육을 시키면서

asian study를 청강해서 사회정신의학의 일환으로 민족성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다가. 한일, 미일, 한미관계를 공부하기에 이르렀었다네. 그 와중에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을 읽고 이에대한 공부를 더 계속하다가. 1999년 월간 중앙에 긴 글을 실었었지.

이께하라라는 일인이 한국인을 비판하는 글을 분석하는 글이었다네. 다음에 연속으로 서울대학의 김윤식 교수의 이광수 연구를 집중 분석해서 김윤식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다시 월간 중앙에 올렸지.

국문학계와 역사학계에 큰 썬세이션을 이르켜 여기 저기에서 강연을 하고 다녔었다네.

일약 스타가 되어서 2000년에는 교수 신문사에서 선출하는"세계 속의 한국 지성인" 25명에 한사람으로 발탁이 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었지.

의사로서는 내가 유일한 교수였었네.

계속해서 쓴 책이 "이광수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었는데 부제는 "한국적 자아의 영광과 오욕"이라는 것이었어.

우리는 훼손을 해야 했던 이광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지.

그 책은 절판이 되어 이제는 구할 수가 없게 되어서 미안하네 다행이 원고가 있어서 보내니 관심이 있게 되면 한 번 일별해 주게나.

그리고 내가 지난 10수년간 외도를 해온 블로그도 주소도 같이 보내네.

<http://blog.daum.net/thomasjorhee>

<file:///Users/jorhee/Desktop/NEW%20FILE%20/AAANEW1-2.hwp>